

2024년 3월 3일 주일 2부 예배 신봉준 목사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인생이 바뀐다

(롬1:2-4)

서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으나 애굽에서 나오는 동시에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만나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 불안하고, 불신앙에 잡혀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가.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롬1:2, 롬16:25, 엡1:3-4).

나. 원죄, 사망, 저주, 지옥의 배경을 다 끝내신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요19:30).

- 복음에 답이 나고 복음 자체로 감사하게 하소서(고전10:31).

다.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 절대 복음, 영원한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히10:14).
-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소서(요20:31).
- 우리가 가진 완전한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히13:8).

2. 그런데 나는 왜?

가. 요셉처럼 복음과 전도에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 모든 일에 절대계획을 붙잡게 하소서.

나.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근본부터 치유되게 하소서.

다. 다시 그리스도 언약으로 돌아가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라. 복음으로 인생 전환점을 찾아가게 하소서(고전2:1-3, 갈6:14).

결론: 내가 지식으로 알던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로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이 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수록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